

지자체 실시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각 지자체마다 향토색을 진하게 드러내려는 움직임인 듯하다.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최대한 특성화 시켜보겠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는 먹거리나 볼거리 중심의 축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례도 더러 있어 때로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사라 P. 화이트의 <세상을 깨우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책을 소개한 글에서 'H3 리더'라는 신조어를 본 적이 있다.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열정적이고(hot) 진보적이며(hip) 일을 만들어 가는(happening)' 사람들이라는 단어의 어니셜을 따서 만든 말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조직의 설계 및 운영을 창의적으로 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100명이 넘는 뛰어난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최근 경춘선 춘천 부근의 작은 역인 신남(新南)역에서 제시돼 찬란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역 이름을 김유정



불자 세상보기

최성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驛 이름을 판다?

(鎭裕)역으로 변경하고자 한 청원이 그것이다. 이 역이 소재한 춘천시 신동면의 신태마을은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동백꽃> <소낙비> <봄봄> <산골> 등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소설 30여 편을 남기고 2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그가 남긴 문학사적 족적이 비해 지금 그곳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그가 심었다고 전하는 느티나무, 소설 <산골>에 등장하는 연자방아의 밑둥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다고 한다.

사실 그 지역의 지명을 역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틀을 깨고 과감히 지역 출신의 인명으로 바꿔보겠다는 시골 역무원들의 생각은 대단한 도전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H3 리더'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난 9월 5일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 발표한 '지하철 역 이름의 판매방안 검토'는 어떤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김유정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하루에도 수백대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서울의 지하철역이 김유정역과 같은 사인일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시민이 겪어야 할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고 싶다.

또한 정부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2007년까지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고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약 2조8천억원의 시설보완을 위해 나온 교육정책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 엄청난 금액을 지하철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지하철이 서울시민의 전유물은 아닐테니 말이다.

또, 역 이름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적으로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 이름의 판매 또는 임대라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한 둘이 아니다. 장기간 영구적으로 갈 경우에도 기존의 이름과 함께 사용할 것인가? 공공시설이 사유화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아예가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다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H3 리더'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성공한 지자체의 사업 케이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화되면서, 책의 문화적 가치는 노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주고객층인 20~30대의 기호에 맞는 대중적인 책만이 살아남고, 전문서나 종교서적 특히 불교서적은 거의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2년 통계를 보면, 출판사 19,135개 중 1종이라도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1,524에 불과하고, 발행 종수의 70%는 상위 10%의 출판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전문 출판사의 입지는 일반 중소기업 출판사보다 더 불리하다.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매 상으로부터 출판권, 베스트셀러 위주의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대형서점에서는 사각 지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 전문 출판사들이 '불교출판문화협회'의 창립을 준비하는 것도 이에 대한 자구책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불교출판문화협회'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에 부쳐

우선 '불교출판'이라는 본연의 잃지 않는다면, 명분은 짐작하지 말고 기업적 성공에 진력하라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서 포고 운운하면서 불자들의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상당 부분 '조합'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야만 물류 일원화 같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은 물론, 통합 유통으로 생산자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신생 출판사의 시장 진입을 도와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회원사간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함께하되, 같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기획의 정신이어야 한다. 안이하게 '불자'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다들 읽겠지?' 하는 허황된 기대를 버리고, 세대별·종단별·신앙정체성별로 섬세하게 접근하면서 전문성은 강화하고 중복출판은 피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 상승 작용이 일어날 때, 일반 시장을 겨냥한 기획력이 창출될 것이다.

덕담을 생각하는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현 단계에서 협회의 기능은 회원사의 권익 신장이 아니라 '권익 만들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재학(이동문학가)

특별기고

불교 용어 표준화에 반대한다

한형조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학회 등 14개 불교학술단체가 그동안의 한문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불교 용어를 '창안'하겠다고 선포했다. 그것도 연구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무적으로', 즉 강제로 쓰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교과서 제작이나 논문 작성 때 의무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뉴스에 인용된 '서울신문' 기사)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한국불교학회는 이 표준화 작업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기업을 토했다. 총무이사인 김윤표 교수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표준화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 따져보자. 우선,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다. 왜 세상 불교 용어가 표준화되어야 하는가. 한다면, 어쩌서 인도식 발음으로의 복고인가. 그것이 불교를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가.

'불교 용어 표준화 불사 위원회'가 내세운 표준화의 이유는 불교 용어가 중국어 발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Kumalajiva(강을 표기는 생략했다)의 우리말 표기가 '구마라집' '구마라집' '구마라집' '구마라집' 등, 울는 사람 각자의 학문 배경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불교서적을 읽을 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지나친 바가 있다. 예로 든 구마라집은 심(心)자의 발음이 좀 애매한 특수한 경우이지, 대체로 우리말 한문 용어는 거의 통일되어 있다. 표준화는 이미 되어 있다. 그렇

지 않은가. '반야' '열반' '보리' '시방'에 무슨 제각각이 있고 중국발음이 있는가.

백보를 양보하자. 꼭 표준화해야 겠다면, 당연히, 수천년의 경경과 담금질을 견뎌낸 한문 용어여야지, 근본도 모르는 새 용어를 '수입' 하겠다는 게 가능한가?

위원회는 말한다. 그동안 써 온 한문 용어들은 구마라집(새 표기법으로 하자면 구마라지) 등 역경사들이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중국음가로 표현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초기 불교의

누가 2000년의 불교 용어에 함부로 칼을 대는가

원음'을 '왜곡했다'고 당당히 말한다. 정말 그런가. 그럼, 어디 불어보자.

누가 부처님의 원 발음을 복원할 수 있을까. 없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붓다의 열반 이후 수백년이 지난 후에 불교가 기록될 때 비로소 채택된 언어들이다. 고타마 붓다 그분은 '반야'라고 하신지도 않았지만, '뽀라'나, '뽀냐'나, '뽀라즈'나, '한야' '뽀우어'라고도 하신지 않았다. 그렇다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서장어, 한문, 영어, 우리말 가운데 누구도 종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관습과 유용성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시안은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팔리어도 아니다. 이를테면 '뽀라'는 산스크리트 '뽀라즈'의 병음



지방 사투리 발음이다. 산스크리트어만 해도 한 다리 건넜는데, 그 한 다리 건넌 발음, 그 근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라고 하여, 그것을 지금 우리더러 강요한다 말인가. 인도어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 이상한 발음을 표준으로 삼지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위원회는 불교가 가장 경계하는 상견(常見, 즉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빠져있다. 그리고 위험하게도 수입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라. 한국 불교를 지켜온 것은 유학을 떠난 의상이 아니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선 원효였다. 중국불교를 일으킨 것은 끊임

없이 인도의 원전에 조화한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으로 당대 대중들의 불성에 직접 호소한 육조 혜능이라는 것을. 인도 유식을 그대로 수입한 법상종은 사라졌지만, 선(禪)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인도 원음으로의 표준화와 그 전면적 강요는 한국불교의 숨통을, 마침내, 끊어놓고 말 것이다. 용어 표기 하나 갖고 너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렇지 않다. 용어는 그 안에 박제화된 의미만 통조림처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깊이와 표정과 울림, 그리고 신통력을 갖고 있다. 엄밀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만 깊이와 표정, 울림과 신통력을 갖고 있기에, 엄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곳, 극락정토에 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신성한 '소리'를 함부로 바꾸거나 칼을 대서는 안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가제, 가제, 빠라가제, 빠라상가제 보디소와하'로 바꾼다고? 이제 한역 <금강경>은 버리고, 모두들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을, 그것도 병갈 사투리로 더듬거리며 독송하자는 말인가.

새 표준안이 마련되면, 당장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이 '이중 장치'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에 '이미'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식들과 전국의 신자들, 그리고 문화계와 학계의 지식인들은 이 혁명에 구토를 느끼고, 그 수용을 거부할 것이다. 천년을 이어온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과 한국 불교의 전통은 단절되고, 혁명정국이 오리무중을 헤매는 동안, 불교는 대부분의 청중들을 잃고, 자신의 생명력은 물론, 미래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고갈시킬 것이다. 그때 한국 불교의 등불은 꺼진다. 여기서 무슨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운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인가.

한문 용어는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지금' 그 한문 불교의 기반 위에서 불교를 말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누가 토를 달는가. 지금, 불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오직 인도 원전 불교'라는 이상(俄相)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불교는 구경이 아니라 방편(方便)이라는 것을. 불교는 어디까지나 도구이므로, 궁극적 권위는 없다. 원전도 없다. 궁극적 권위나 원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불성, 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불교란 없다. '표준화된' 불교도 없다. 오직 불교를 말하고 익히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불교가 있을 뿐이다.

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행**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이것은 흥당무도 토기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만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흥 합장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상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법정수행 청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www.drsoju.com

전문가 맥학커뮤니티
프로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www.drsoju.com)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권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유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